

헬기장 대폭 확대

정부는 헬기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객터미널을 갖춘 공공헬기장 후보 16곳을 선정,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5월 9일 헬기를 이용하는 여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헬기 운송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헬기장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공헬기장 건설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항공청별로 국유지나 하천부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하고 헬기여객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이촌동 중지도와 여의도 고수부지, 용산 가족공원, 인천의 송도 유원지, 충북 청주시 무심천 고수부지, 전북 정읍시의 하천부지, 대구 북구 친선동, 울산 남구 신정동, 경남 창원군 부곡면, 양산군 하북면, 전남 여천군 울산도, 광주 북구 임동, 진주시 남강 고수부지, 부산 해운대, 대전 대덕연구단지과 김천 하천부지등 16 곳이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요금 차별화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부터 항공요금을 세분화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6월부터 현재의 시장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등급 정도로 요금을 세분화한 뒤 적용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항공요금 차별화는 여행사가 그룹관광객유치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무더기로 구입, 급박한 용무가 있는 실수요자들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을 개선, 항공권 예약 개시일을 현재의 3백40일전에서 17일 늘린 3백57일전으로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함께 내년초 국내선 항공권을 자동판매기들이용, 판매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탑승수속을 위해 체크인(CHECK-IN)을 항공기 이용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체크인 장비를 도입, 운용할 계획이다.

정유회사 공항시설 사용료 안받아

감사원은 김포공항에서 송유관등 국유재산을 이용,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 4개 정유회사로부터 한국공항공단이 시설유지비에 별도의 구내영업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4월 18일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 정유회사가 공항내 송유관, 저장탱크등을 사용하며 각 항공사에 항공유를 판매하는데도 공항공단이 사용료 명목의 시설유지비에 구내영업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아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공항, 내년 민항기 운항

현재 대통령이나 국민 전용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빠르면 96년부터 민간기 운항이 이뤄질 전망이다.

4월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이착륙·운항 횟수등이 한계에 도달한 김포공항의 포화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영종도 신공항이 개항되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공항에도 일부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공항에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한 소음영향등을 고려, 부산·제주등 항공수요가 많은 국내선 항공편을 중심으로 하루 10여회 정도 낮에만 운항할 방침이다.

러시아 첫 채무상환용 헬기 취항식.. 산불진화 투입

러시아에서 첫 경험차관 상환용으로 국내에 들어온 헬기 4대가 산불진화에 투입되었다.

산림청은 4월 18일 오전 김포공항 활주로 건너편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광만섭산림청장, 러시아의 재무부 스토르차크 외채국장대리 등 러시아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말에 인도받은 러시아 채무 상환용 헬기 4대의 취항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지난 93년 이 헬기와 같은 기종의 러시아 헬기 2대를 구입했으며 이번에 4대를 도입함에 따라 모두 6대의 러시아 헬기를 보유하게 됐다.

산림청은 오는 97년까지 러시아제 헬기 5대를 추가 도입, 모두 27대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울산·경주상의, 항공기운항 풍속제한 완화 요구

울산상공회의소와 경주상공회의소는 풍속에 따른 울산공항의 항공기운항 제한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이유로 활주로 길이가 1천5백m인 울산, 여수, 목포등 3개 공항에 대해 측풍(옆에서 부는 바람)의 풍속이 15노트 이상일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다.

F-100항공기 엔진 10만회 무결함 비행

대한항공은 4월 24일 주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F-100 여객기에 장착된 TAY 650-15 제트 엔진의 10만회 무결함 이착륙 비행기록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2년 5월 4일부터 이날까지 약 3년동안 예비엔진을 포함, 총 29대의 TAY

650-15엔진이 10만회 이착륙 비행하는 동안 '비행중 엔진정지율 제로, 엔진의 비계획 장탈률 제로'를 기록했다.

산불진화 위한 '전남지방항공대' 설치 건의

전라남도는 4월 26일 '전남지방항공대'를 설치하고 헬기 5대를 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산림청 산하 김포항공관리소(경기)와 양산지방 항공대(경남)가 설치된 가운데 각각 13대와 5대의 헬기가 배치돼 있으며, 새로 설치되고 있는 전북 익산지방항공대의 경우 오는 8월말 헬기 5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타도에 비해 산림면적이 넓은 등으로 산불 발생요인이 많은데도 아직 항공대가 설치되지 않아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순천과 해남 지역에 각 1대씩의 산불 진화용 헬기가 배치돼 있으나 자주 교체되는 바람에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물론 산림병충해 방제시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총 2만6천80ha의

산림에 번진 병해충에 대한 항공 방제시 연 1백40대의 헬기를, 울 들어 발생한 산불 35건을 진화하는데 연 77대의 헬기를 각각 동원했다고 밝혔다.

미,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시장개방 압력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등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5월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오는 6월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교통장관 회의를 앞두고 역내노선 참여등을 자유화하는 '오픈스카이(항공시장개방)'정책을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니혼 게이자이는 이같은 제의에 대해 미 항공회사의 개방압력을 받고있는 일본을 비롯한 한국,중국등 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의 실무회의를 통해 강력히 반발, 이번 APEC회의에서는 항공시장개방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항공시장규모가 작은 뉴질랜드, 싱가포르등은 미측의 오픈스카이 정책에 비교적 적

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항공사들의 높은 경쟁력을 내세워 지난 92년 항공노선참여, 노선운항편수및 운항회사수, 전세기운항 자유화등을 골자로 하는 오픈스카이 정책을 채택한 후 최근 들어서는 경제급성장으로 항공수요가 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시장에 눈독을 들여왔다.

국제기상예보 서비스 본격 가동

세계 각국의 기상자료와 예보를 교환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상예보 서비스가 5월 3일 본격 가동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립기상국과 영국 기상청은 전 세계 기상 정보를 취합한 뒤 인공위성을 통해 회원국에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은 남·북미지역과 태평양,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를 취합하고 영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기상자료를 다루게 된다.

미 대양·대기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장은 "전 세계 기상예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 운항과 경제적인 연료 공급 및 이륙 시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상자료를 각국 항공업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간 소요예산 1백40만 달러를 국립기상국과 연방항공국, 국무부가 분담토록 했으며 기타 정보 공급 비용은 국제기구들과 개별 회원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국제 기상예보 시스템에는 ICAO 회원국과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려면 5만달러를 들여 지상기지를 세워야 한다.

에어 캐나다, 항공기 31대 도입

에어 캐나다는 4월 11일, 에어버스 A340S 6대와 A319S 25대 등 총 31대의 신형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제금융 신디케이트로부터 1억6천5백만달러의 상업차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340S 6대와 A319S 25대는 각각 오는 96년말과 98년5월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더럴 익스프레스사, 아메리칸 항공사 중고 항공기 매입

미 페더럴 익스프레스사는 아메리칸 항공사로 부터 중고항공기 DC-11기 19대를 매입키로 합의했다.

유나이티드항공, 5억7천만불 규모 주문

보잉사는 유나이티드 항공사로부터 747-400기 2대와 757기 4대 등 총5억7천만 달러규모의 항공기 제작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엔진은 프랫 & 휘트니사가 제작하며 96년 봄에 유나이티드사에 인도하게 된다.

퀀타스 항공사, 3억3천만불 항공기 주문

보잉사는 호주의 퀀타스 에어웨이사로 부터 737-400기 3대와 767-300ER기 2대 등 총3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항공기 제작주문을 수주했다.

걸프항공, B777 6대 주문 취소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방등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중동의 항공사 걸프 에어사는 보잉사와 체결한 보잉777기 6대 및 옵션조건인 기타 항공기 6대 제작주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계약규모는 총17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 서방제 민항기 대량 임대계획

러시아는 신형 국산항공기의 생산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향후 5년 내에 약 100대의 서방제 민항기를 임대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교통부장관 비탈리 에피모프에 의하면 러시아제 엔진의 높은 연료소모율로 인해 러시아 민항기는 서방제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러시아제 민항기의 이러한 결점은 IL-96-300과 Tu-204 여객기와 같은 최신의 러시아 여객기 판매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 항공사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민항기를 약 10,000대 운항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기령이 25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체 항공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방제 항공기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에로플로트사의 보잉 767 여객기와 같이 관세부과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경쟁을 막는 높은 관세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는 국영 리스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러시아제 민항기를 구입하려는 항공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모스크바행 항로 단축

국내항공사의 몽골항로 취항의 의미는 모스크바, 유럽까지의 운항시간단축이라는 물리적인 수송편의보다 지난해 7월 한국과 중국간에 조인된 항공협정이 이번 중국영공통과를 계기로 비로소 본궤도에 들어섰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항공협정을 체결하면서 베이징(북경), 칭다오(청도) 등 중국 5개도시와 서울을 운항하는 직항로개설에 합의, 상무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양국항공사가 첫 취항했다. 그러나 중국 영공개방을 계기로 기대됐던 유럽노선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중국측이 관세소수용능력미비등을 이유로 상무협상

을 미뤄 지금까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중국측이 지금까지 몽골항로 개방을 미뤄왔던 것은 관제소의 수용능력 문제도 있었지만 이 항로를 국내항공사에만 허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다른 나라의 형평성문제를 염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에어로플로트(AFL)만이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진해-서울 여객기 운항 곧 재개

경남 진해시 덕산동 K-10 해군 전용 비행장에 민간항공기의 취항이 허용됨에 따라 금명간 서울-진해간 여객기 운항이 26년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항공사와 해군은 민항 취항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진해-서울간을 운항할 여객기는 30인승 제트 스트림 41기로 알려졌다.

이 구간에는 지난 69년 8월 22일 진해를 떠나 서울로 가던 세기항공 소속 6인승 여객기가 추락해 당시 국회의원 등 6명이 숨진 사고 이후 노선이 폐쇄됐다.

영종신공항-백령도간 경비행기 항로 개설

오는 97년부터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경비행기 정기 항공노선이 개설된다.

4월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종도 신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97년까지 옹진군 백령도에 소규모 지방공항을 건설, 정기노선의 경비행기를 취항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 백령, 대청, 소연평, 대연평, 덕적, 자월도 등 6개 섬지역에 헬리포트를 만들어 이들 지역을 잇는 헬기의 정기 항공노선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요르단, 최초의 협력협정 체결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4월 10일에 체결된 평화조약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4월 4일 최초의 협력협정인 관광·항공운수협정에 서명했다고 관영 요르단통신이 보도했다.

요르단 관리들은 이 협정이 국영항공사들인 로열 요르단항공과 엘알항공을 포함한 양국 관광관련 기구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확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두 국영

항 공사가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미·영 항공협정 협상 재개

미국과 영국은 4월 10일 장기간 교착상태로 있는 양국공항 개방을 주제로한 미·영항공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재개는 미국이 최근 벨기에,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의 6개 중소국과 일련의 영공 개방·항공시장 자유화 협정을 체결한데 이은 것이다.

과거 협상에서는 런던 헤스로우 공항의 미 항공기 이착륙 허용을 요구한 미국측의 요청을 동공항공의 교통포화상태를 이유로 영국이 거절해 교착상태에 있었다.

미국은 영국 브리티시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헤스로우공항을 대서양 노선의 유럽대륙 진출을 위한 요충지로 간주하고 양국간에 호혜적 항공개방을 골자로 체결된 버뮤다협정을 대폭확대 양항공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